

## 아기 안고 교통정리 한 여성 경찰



도로 한복판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한 여성경찰의 사연이 화제다.

교통경찰인 샤오웨이 씨는 지난 11일 오전, 충청시 위중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30대 남성 루 씨로부터 그의 아이를 잠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루 씨는 “아내가 하혈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명이 위독한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잠시 맡아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부탁을 받고 샤오웨이 씨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교통 지휘봉을 잡고 근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샤오웨이 씨는 “한 남성이 내게 와서 아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면서 곧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 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샤오웨이 씨는 “남자는 아이를 내 품에 맡긴 채 약 100m 떨어진 제3인민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의 자동차 문을 닫는 것도 잊을 정도로 초조하고 급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샤오웨이 씨는 오전 근무 내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근무했다.

그의 모습은 곧장 이 일대를 오가는 이들에 의해 촬영,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되며 큰 관심을 얻었다. 더욱이 샤오웨이 씨는 이날 오전 내린 소나기 탓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우려, 인근 소재 과출소 동료들에게 이동용 담요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선행에 대해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한 손에 품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유난히 주의를 기울이는 샤오웨이 씨의 모습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날 아이는 생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품에서 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루 씨의 아내는 지난 1일 출산을 했으며 아이의 눈에 이상이 있어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자동차 안에서 하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쿨버스 기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아틀레타 셔먼(64)은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유치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전하는 스쿨버스에 타는 한 꼬마 승객을 위한 특별운행을 했다.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는 셔먼이 유치원생인 안나 흡슨의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스쿨버스를 거대한 파티장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안나 흡슨은 신경성 진행성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유전성 신경 장애로 근육 위축과 감각 장애가 일어난다. 주로 팔과 다리 신경 손상으로 촉각이 상실되며 보행 장애가 동반된다. 2,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 이 질환으로 안나는 6개월 전부터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안나의 어머니 캐슬린 흡슨은 인터뷰에서 “안나는 매우 독립적인 아이였다. 3살 때부터 부모 없이도 혼자 스쿨버스를 타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캐슬린의 걱정이 시작됐다. 딸이 스쿨버스에는 잘 타는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는지 신경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안나는 늘 그랬듯 씩씩하게 버스에 올랐고 그런 안나를 스쿨버스 기사인 셔먼은 반갑게 맞이했다. 셔먼은 “안나는 절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버스에 오르



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런 안나를 위해 셔먼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10일 셔먼은 안나의 5번째 생일을 맞아 스쿨버스 내부를 생일 축하 팻말로 장식하고 안나에게 드레스와 티아라를 입혀 주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유치원생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러주며 안나의 생일을 기념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휠체어를 탄 채 특별한 ‘생일 버스’에 올라탄 안나는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냐?”고 놀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셔먼은 “늘 밝은 모습의 안나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면서 “안나 자체가 나에게 는 감동”이라고 말했다.

## 14세 소녀가 범죄 조직 두목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이른바 ‘통행료’를 갈취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잡고 보니 조직의 우두머리는 여자어린이였다.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난13일 콜롬비아 경찰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14살 여자어린이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관계자는 “그간 메데진 13구역에서 발생한 복수의 운전기사 살인사건, 차량공격사건 중 다수가 이 여자어린이의 명령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자어린이는 무장범죄조직을 결성, 13구역을 오가는 택시나 버스, 트럭 등에 매일 통행료를 받아왔다. 기사들이 상납한 돈은 평균 13달러. 콜롬비아 물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운수업을 하는 한 기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숨 걸고 운전대를 잡느니 돈을 주거나 아예 일을 나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13구역에선 그간 복수의 운전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불을 지르는 등 차량을 공격한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통행료 내길 거부한 기사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벌벌 떠는 세상이 됐다.”면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소년들 역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절도, 불법총기 소지, 마약류 판매 등의 혐의로 메데진 소년원에 수감된 14~17살 청소년은 현재 1,000명을 웃돈다. 이 가운데 25%는 살인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하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